

문화접대비 9월 시행

‘책 선물’ 현실적 홍보방안 필요

글_송보경 기자 | 사진_ 문화관광부 홍보물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문화접대비’ 제도에 출판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 접대비’는 기업에서 지출되는 접대비 지출액 중 책, 음반, 공연이나 전시 입장권 등 문화 분야에 3%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하면 접대비의 약 10%까지 추가 손비를 인정해주는 기업 세제 지원제도이다.

기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은 전체 5조 원 가운데 향응접대가 61.4%를 차지한 반면 문화접대는 2.6% 정도로 머물렀다.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문화접대비 제도 시행으로 기업은 150여억 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이 예상되며 문화예술산업 신규 수요는 최대 5,000억 원 정도로 성장, 건강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서비스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판계는 공연, 전시쪽으로 집중되는 관심을 ‘도서 선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판인 내부적으로도 ‘문화접대비’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 및 홍보가 부족한 현실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출판사들의 영업과 홍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체 브로슈어를 제작하고 신문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바다출판사 김인호 사장은 “최근들어 기업들이 지식경영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독서경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기업이 적극 활용해 출판사가 직접 책을 파는 것이 아닌 기업의 독서 문화 조성에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접대비’ 시행 관련해 출판계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도서 구입 용도로 활용되는 문화·도서상품권 등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문화접대비에서 제외되고, 기업내 독서 경영을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도서구입은 복지후생비에 해당된다. 한 중소기업인은 “공연티켓 선물과 달리 책은 받는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도서교환권과 같이 서로가 즐겨 주고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생겨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물관, 미술관 및 공연장과의 후원 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 홍보활동이 가능한 공연예술계와 달리 출판계는 구미에 당길 적극적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

